

농협 휴일 농기계 수리 '진실게임'

조합원 A씨 "휴일이라 수리 안된다고 했다" ... 농기계센터 "휴일엔 부품 안 파니 평일날 하라고 했다"

고성지역의 한 농협 조합원이라고 밝힌 A씨가 최근 본사를 방문해 농협이 농번기로 바쁜 농민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일요일인 지난달 17일 동료들과 벼씨파종 작업을 하던 중 파종기가 작동하지 않아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담당자가 휴일이라며 수리를 해주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A씨는 또 "농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농협 직원이 농번기에 휴일이라 쉰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그러자 뒤늦게 농기계 수

리센터 직원이 찾아왔지만, 이미 우리가 거진에서 부품을 사와 파종기를 고친 뒤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 관계자는 "우리 농협은 농번기인 3~5월과 10~11월 등 연중 5개월은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실제로 전화통화를 했던 농기계 수리센터 관계자는 "휴일이라서 안가겠다는 게 아니라, 휴일에는 부품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구할 수 없으니 평일 날에 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다른 일정이 있어서 다소 늦었지만, 현장에 가보니 이미 파

종기를 고친 뒤였다"고 했다.

이처럼 양측이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해당 농협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사실 여부를 떠나 조합원이 불편을 겪었다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농민과 조합원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잘잘못을 떠나 농협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시 상황을 전하게 됐다"며 "산과 들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강소농' 육성 실행방안 논의



강소농(작지만 강한농업경영체) 교육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석기 연구관이 강사로 나와 강소농 육성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승근 기자

평택초농의 종목분석

SK(003600)

불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최근 국내 증시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수는 연일 역사상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체감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자동차와 화학업종 위주로 움직이는 차별화 장세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주도주의 추격매수보다는 차분히 조정을 기다리며 여

타 업종으로의 순환매 흐름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오늘은 주식회사 SK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SK(003600)는 SK이노베이션, SKC,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을 둔 SK그룹의 지주회사이다.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물류서비스 분야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자회사들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사



정오영

평택초농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업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가치를 제고,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안정

과 성장을 이루어 간다고 할 수 있다.

SK그룹은 7개 분야의 R&D 및 사업화에 총 1조 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글로벌 톱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7대 중점 추진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자. ▲무공해 석탄 에너지 ▲해양 바이오연료 ▲태양 전지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카 ▲수소연료전지 ▲첨단 그린 도시(u-Eco City)가 7대 중점 육성 과제이다.

현재 SK의 주가는 22만 원

전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1개월 동안 가파른 상승세다. 최근 기관 매수가 집중되면서 주가 급등을 불러왔지만 아직도 저평가 국면에 속한 상태이므로 SK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개인적으로 30만 원 수준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초농)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

고성신문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고성신문은 '행복한 고성 만들기 · 행정과 주민의 가교 ·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 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한 지역 주민들의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기구독이 고성신문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 ① 통장 자동이체
- ② 지로 납부
- ③ 직접 납부(통장, 사무실)

- ◇구 독 료 : 월 4,000원(1년 선금 4만원)
- ◇입금계좌 : 농협 301-0072-9350-81
- ◇예 금 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주식회사 고성신문

문의 ☎033-681-1667